

# 책을 통해 삶을 다진다

水原 직장여성들의 모임 「보느회」

## “많이 보고 많이 느낀다”

깊어가는 가을. 답답한 실내공간으로부터 벗어나, 신선한 바람과 별레소리 속에서 마음에 맞는 벗과 책 이야기를 나누고픈 계절이다.

졸졸 흐르는 물소리와 이제 막 물들기 시작한 나뭇잎이 아름다운 수원 송정농원.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퇴근했을 오후 7시. 젊은 여성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어 연못가에 마련해 놓은 좌석을 채운다. 독서모임 「보느회」의 회원들이다. 「보느회」는 ‘보고 느끼는 회’란 뜻. 바쁜 직장생활 속에서도 책을 통해 삶을 다지려는 직장여성들의 모임, 「보느회」는 86년 7월에 창립되어 매달 한번씩 모임을 갖고 있다.

평상시에는 매월 세계 금요일 수원도립도서관에서 집회를 갖지만, 이날은 보다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토론을 갖고자 특별히 농원에 모였다.

퇴근 후 서둘러 모인 회원들이 20여명. 테이블 위로 날라져 온 풍성한 포도송이에서 결실의 계절 한가운데에 와 있음을 느끼며, 정해진 순서에 따라 토론을 시작한다.

오늘의 주제는 강석경의 「숲속의 방」. 이른바 ‘의식화’와 ‘비의식화’ 조류에서 방황하는 80년대 젊은이의 고통과 좌절을 그린 작품으로, 1986년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한 화제작이다.

이날 자리를 함께 한 수원도립도서관 열람과장金玉男씨가 작가와 작품을 소개한데 이어, 발제자 金炳順씨(24·서울농대 구내 사진실)가 일어나 작품의 줄거리와 자신의 감상을 말한다. 자신은 주인공인 대학교 2학년생 소양의 학교생활에 대한 실망, 흑백논리가 지배하는 시대상황에서 그녀가 겪는 갈등에 공감을 느꼈다고 한다. 그러나 무절제한 방황과 급기야 자살로 치닫는 성격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다고.

발제자의 발표에 이어 회원들이 한 사람씩 일어나, 주인공을 둘러싼 가족·친구들의 성격을 분석하고, 주인공이 겪는 갈등이 과연 성격적 결함 때문이나, 사회환경적 부조리 때문이나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소양의 반항하는 모습에서 통쾌함을 느꼈다는 회원도 있고, 사회를 이해하기 전에 우선 주인공 자신이

## ‘보고 느끼는’

여성들의 모임 보느회.

수원지역 직장에 종사하고 있는

보느회 70여명의 회원들은

독서토론 뿐만 아니라,

VTR관람토론회, 천자문강좌 등

각종 특강에도 열심이다.

스스로를 몰랐던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는 회원도 있다. 결국 토론의 방향은 주인공이 원했던 세계, 숲속의 방이란 어떤 것인지, 죽음으로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집중된다. 짧은 시간내에 결론을 얻을 수 없는 미묘한 문제들이지만, 각자 나름대로 의견을 발표하는 회원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하다.

## 독서습관과 발표력 향상이 목적

“독서란 본질적으로 혼자서 하는 행위지요. 하지만 일단 책장을 덮고 나면 잊혀지기도 쉽더군요. 책을 읽고 나서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책의 내용을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접할 수 있는 잇점이 있어요. 이런 자연스런 필요성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 바로 「보느회」입니다.”

회장을 맡고 있는 李惠淑씨(28·노동부 안양사무소)는 독서모임의 의미를 이렇게 말한다.

「보느회」창단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수원도립도서관측에서 직장인 대상의 독서모임 회원을 모집하게 되면서부터. 창단의 골격은 도서관측에서 마련했지만, 명칭결정에서부터 운영절차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의 모습으로 가꾸어낸 것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힘이었다.

현재 회원수는 70여명. 평균연령은 24~25세, 고졸 내지 대학출신의 수원지역 직장여성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처음에는 직장에 다니면서 독서시간을 내기가 힘들었고,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여러번 토론에 참여하다 보니 책을 가까이하는 습관이 들었고, 발표



아원에서 토론하고 있는 회원들.

력도는 것 같아요.”

주제발표를 한 金炳順씨의 말이다. 이 모임에는 관공서, 기업체, 은행 등 여러 직장에 종사하는 회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서로 구해 보기도 하고 회사의 업무처리 때 「보느회」 동료로부터 도움을 받는 잇점도 있다고.

「보느회」에서는 독서토론 외에도, 매주 월요일마다 천자문강좌를 갖고 있다. 또한 독후감 및 원고지 작성법, 속독법에 관한 특강을 두차례 마련한 바 있으며, 도서관측에서 실시하는 VTR관람 토론회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비디오 테이프는 여성 대상의 교양물 중심.

86년 11월 첫 모임을 가진 이래,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토론된 책들은 「독일인의 사랑」(막스 뮐러) 「김약국의 딸들」(박경리) 「이방인」(카뮈) 「카인의 후예」(황순원) 「여자의 일생」(모파상)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이제하) 등 주로 창작소설들이 중심이다.

초창기에는 회원들의 교체가 잦아 운영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만이 남게 되면서, 자연 모임의 성격이 순수하게 자리잡게 되었다고. 앞으로 좀 더 토대가 잡히게 되면 회원 文集도 발간하고, 직장 남성들에게도 입회를 개방할 계획이다.

## 젊은 여성들의 건강한 삶

토론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회원들은 이 작품에서 말하는 ‘숲속의 방’의 의미를 정리해 보고, 어느 한쪽의 선택을 강요하는 정치적·사회적 시대상황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한다. 과연 우리가 안주할 수 있는 방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진지하게 토론하는 모습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젊은 여성들의 건강한 삶이 느껴진다.

모임의 마지막 순서는 다음 토론할 책의 선정. 회원들이 추천한 여러 책들 중에서 시몬느 보봐르의 「위기의 여자」를 다수결로 결정했다. 단란한 가정을 꾸려가던 중년부인이, 남편의 부정을 알게 되면서 자신이 서있는 위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심리적·정신적 변화를 겪게 된다는 내용의 작품. 20대의 젊은 여성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주제이지만, 중년 여성의 삶의 모습과 심리를 미리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는 추천자의 말이 설득력이 있었나 보다.

토론을 마치고 어느새 어두워진 송정농원을 나서는 보느회원들의 얼굴에는 가을밤의 공기보다도 더 신선한 생기와 자신감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 오애리 기자